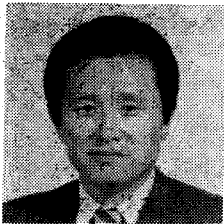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特許發明품 企業化 成功 三和技研(株) 金仁錫 사장



〈金仁錫 사장〉

「電子式 과전류릴레이」는 電氣設備에 정해진 電流이상의 무리한 電流가 흐를 때 따라 발생하는 機械고장이나 정전사고를 방지해 주는 장치.

85년에 特許를 받고 '85全國 優秀發明品 展示會에서 大統領賞을 받은 이 製品은 三和技研(주)의 金仁錫 사장이 發明했다.

金사장은 '86全國 優秀發明品 展示會에서도 「모터의 과부하 차단기」를 出品하여 金賞을 수상, 發明 企業人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生産工場에서의 돌발적인 電氣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에 미치는 손실은 엄청나게 크다. 生産性 향상을 위한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電氣設備의 철저한 유지보수로 갑작스런 정전사고를 막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金사장은 강조한다.

전북 이리출신으로 전북대 전기공학과를 나온 金사장은 석탄공사, 아남산업 등에서 근무하면서 電氣分野의 일을 맡아 해왔다.

현재 國內에는 과전류릴레이가 몇종이 있으나 機械的인 특성 때문에 精密性 동작시간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開發하게 됐다고. 또 金사장은 部品이나 完製品을 輸入하느라 비싼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이 製品은 기존 과전류릴레이의 결점을 개선했기 때문에 年 30억원의 절전효과와 120만달러의 외화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電子式 과전류릴레이는 현재 美·日 등에 特許出願중이고 輸出 실적도 현재 1만 3천달러.

電氣工學을 전공한 金씨는 産業 電子계통의 特許만 6개(國內 5, 美國 1)를 갖고 있다. 앞으로 開發 가능한 新技術도 10여개나 갖고 있으나 지금 밝히기는 시기상조라며 國產品이 안전기능과 외관에 손색이 없다면 國產製品을 사용하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8년 전부터 독립해 産業電子分野에서 우리 기술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新技術開發에 몰두하고 있는 金사장은 아직까지 국민들간에 외제선호사상이 팽배해 있다고 안타까와 한다.

金사장은 新技術을 開發해 내도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 누가 고생해가면서 技術開發을 하겠느냐고 반문한다.

金씨가 開發한 電子式 과전류릴레이는 2만 5천원이나 輸入品은 7만~8만원으로 가격면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편.

電氣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製品의 특성을 잘 이해해 준다고 한다. <8>

第35回 發明教室

1月 10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1月 10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35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번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三和技研 金仁錫 社長과 新韓산업…○
- …사 金俊雄 社長の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工業所有權制度」에…○
-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주려 紹介한다. ……○

콩나물 栽培의 機械化실현

新韓산업사 金俊雄 社長

新韓산업사 金俊雄社장은 집에서 農藥위험없이 衛生的인 콩나물을 栽培하여 먹을 수 있는 콩나물栽培器(實用新案 18722號)를 開發, 市販하고 있다.

이 콩나물 栽培器는 86全國優秀 發明品 展示會에 出品되어 관람객의 인기를 독차지한 新開發品이다.

『콩나물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즘 農藥때문에 마음놓고 먹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먹는 것만이라도 깨끗한 콩나물을 먹을 수 있도록 콩나물 栽培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먹기 위해 기르기 시작했는데 깨끗한 콩나물을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기계를 만들게 됐다고 金社長은 설명했다.

조립했을 때의 크기는 가로 32cm, 세로 22cm, 높이 58cm, 電氣料는 한달내내 써도 얼마 나오지 않는다.

電氣를 사용하여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려 1시간마다 분사시켜 준다. 콩을 심은 다음부터 여름에

는 4일, 겨울에는 1주일이면 콩나물을 먹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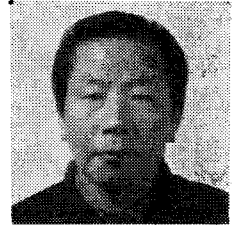
1시간마다 물을 분사시켜주기 위해 부력을 이용한 공기양수기를 부착하였다. 製品開發 당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한번 栽培하면 콩나물 2kg을 얻을 수 있어 5가족이 두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金社長은 『한달 약간의 電氣料와 콩값으로 요즘 시중에 나오는 無公害 콩나물 약 2천 400원어치를 먹을 수 있다』고 소개한다.

콩나물 農藥栽培사건이 빈번해지자 손수 콩나물을 栽培하기 시작한 게 이 製品을 開發하게 된 동기라면 金社長은 앞으로 20kg짜리 3개를 연결시킨 營業용 栽培器도 만들 계획.

金社長은 『현재 이 製品의 보완점이라면 콩나물 栽培의 적정 온도인 20°C를 유지해주는 溫度自動調節裝置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문도 研究를 계속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金俊雄 社長〉

한번 넣은 물은 갈아줄 필요는 없고 증발하거나 콩나물이 흡수해서 부족한 양만큼 보충해주면 된다. 또 물에 맥반식을 넣어주면 물이 맑아지기 때문에 더욱 깨끗하게 자란 콩나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콩나물 외에 숙주나물, 엿기름 등도 栽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용도가 높다. 金社長은 『적은 돈으로 가족에게 안전한 無公害 食品을 먹게 할 수 있고 자녀에게는 「콩나물 栽培는 이렇게 한다」는 自然공부를 시킬 수 있는 製品』이라면서 콩나물 栽培器의 특징을 설명한다. <☞>